현장시선

농촌공간의 재설계, 미래세대의 희망을 더하다

전 병 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최근 농촌은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정주공간과 농사를 짓는 터전이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멸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태어나는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현재 전국 139개 시·군이 지역의 특색을 담은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고장 제주 역시 올해 수립을 목표로 제주농촌만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촌공간계획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부수고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삶터', 청년들의 꿈이 실현되는 '일터', 지친 현대인들이 숨을 고르는 '쉼터'로 근본부터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지난날 이와 비슷하게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지 못해 열의가 꺾여버리고 흐지부지 되고 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수십 년간 땅을 일궈온 주민들의 깊은 지혜와 향후 농촌의 주인이 될 청년들의 신선한 시각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주에는 이미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잠들어 있던 농촌공간을 깨워 생명력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구좌읍 세화리 '질그렝이 거점센터'는 방치됐던 옛 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 공유 오피스와 숙소, 카페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대정읍 하모2리 '대정읍 촌-피스' 또한 기존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역청년, 기업, 주민이 스스로 기획·관리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문화·관광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결국 주민과 청년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질 때 농촌 재생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스스로 비즈니스의 주체가 돼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공간계획 안에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

농촌공간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단기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러한 계획들이 구체화되면, 농촌은 단순히 살아가는 공간을 넘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장소로 변모할 것이다. '제주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현장의 주민들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제주농촌이 소멸의 불안을 지워내고 미래세대가 먼저 찾아오는 희망의 터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책의 주인공이 된 청년들과 오랜 기간 마을을 지켜온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기분 좋은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사설

불법조업, 전방위적 대응으로 철퇴를

며칠 전 제주해양경찰서가 담보금 3억원을 받고 중국 어선 두 척을 석방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 공간에 숨기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나포됐다. 한 척은 삼치·병어 등 4081㎏, 다른 한 척은 갈치·복어 등 2160㎏을 비밀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치어까지 남획, 해양 자원의 씨를 말려 왔다. 저인망을 사용해 해저 생태계의 생장 환경까지 파괴하곤 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남미·아프리카까지 몰려가 불법조업을 하며 원성의 대상이 됐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그 어느 곳보다 막대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같은 피해가 십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니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불법조업으로 얻는 막대한 이득에 비하면 벌금도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정부가 얼마 전 불법조업의 벌금 상한선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나포된 선박이 재판을 받기 전 석방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담보금 또한 최대 15억원으로 올렸다. 모두 기존의 다섯배다. 벌금·담보금을 올린다고 불법조업이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적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이면서도 단호한 대응 없이는 불법조업을 원천 봉쇄할 수 없다.

공보의 대거 전역, 의료 공백 대책 시급

제주지역 공중보건의사 상당수가 다음 달 전역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는 52명이다. 이 가운데 약 38%인 20명이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다. 도서지역과 농어촌 의료 취약지에서 공보의의 역할이 절대적인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전역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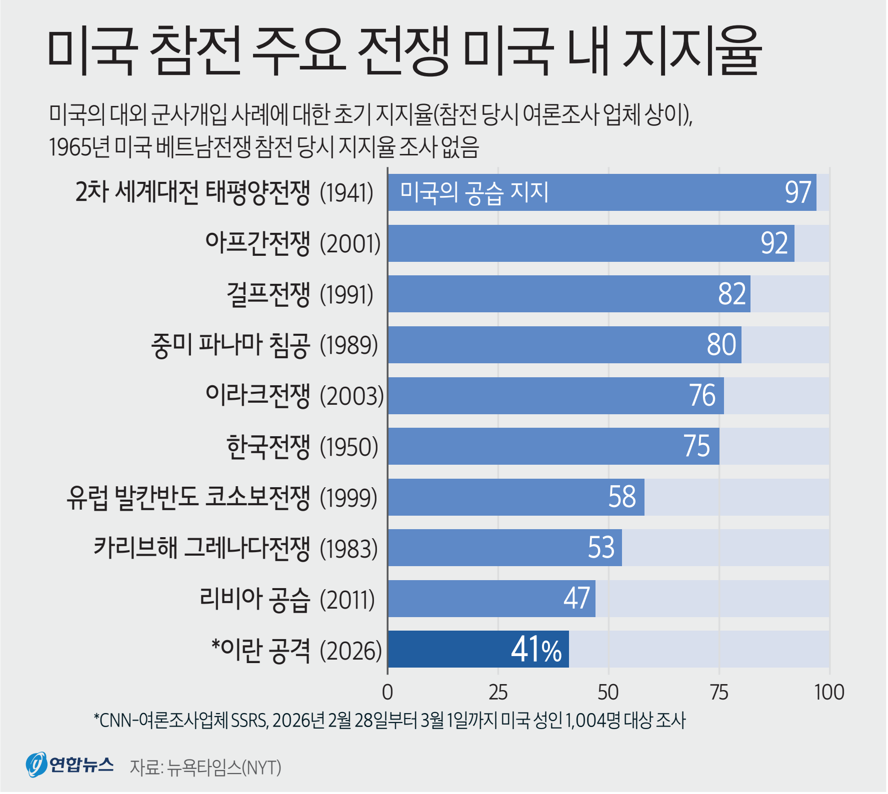
문제는 이들을 대체할 신규 공보의 충원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과' 공보의 수가 더 큰 문제다.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가 지난해의 20%(90여 명)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보의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 취약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 의료 인력이다. 그러나 현역 일반병(18~21개월)보다 긴 복무 기간(37개월),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보의 부족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추자도와 우도 등 섬 지역은 공보의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민들이 기본적인 진료조차 받기 어렵다.

보건당국은 우선 의료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보의를 재배치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협의해 제주에 필요한 공보의가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농어촌과 도서지역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다. 공보의 수급 불안으로 지역 의료가 흔들린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제주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기 전에 정부와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00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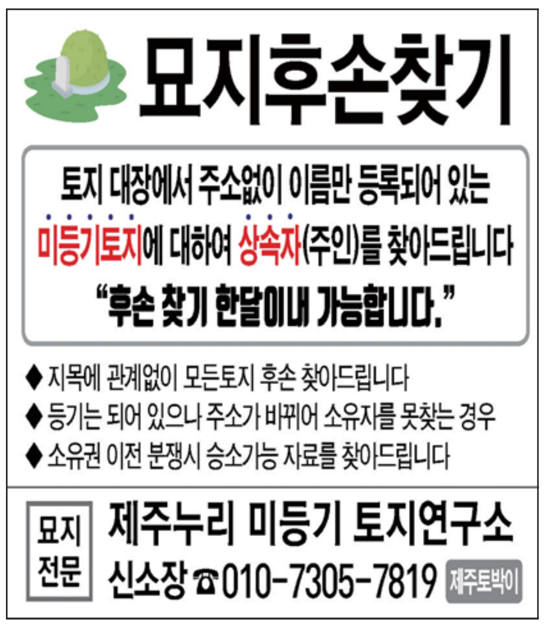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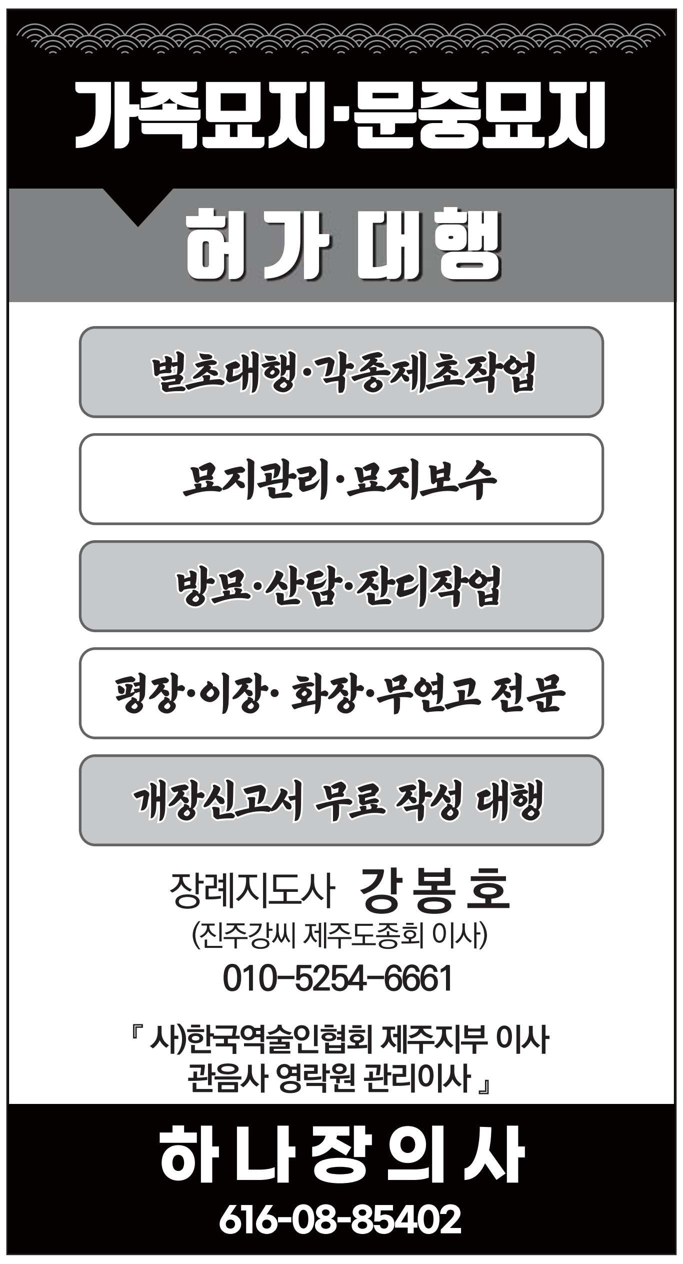
해안을 지키는 일, 바다를 지키는 일

고 성 혁
제주해안경비단 2경비대

해안을 따라 순찰을 돌다 보면 잔잔한 제주바다의 풍경 속에서 때때로 아쉬운 흔적들을 마주하게 된다. 파도에 떠밀려 온 각종 생활 쓰레기와 버려진 부표, 폐그물 등 해안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제주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그 사이에 남겨진 쓰레기들은 마음 한편을 무겁게 하기도 한다.

낚시나 해양 레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도 종종 눈에 띈다. 작은 비닐 하나, 빈 플라스틱 병 하나가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바다와 해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제주바다는 많은 이들에게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다.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해양레저를 즐기는 관광객, 그리고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어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바다를 찾는다. 하지만 작은 부주의로 남겨진 쓰레기 하나가 결국 해안을 더럽히고 제주 바다의 소중한 환경을 훼손하기도 한다.

깨끗한 해안은 누군가의 노력만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바다를 찾는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쓰레기를 줄이려는 작은 실천을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청정 제주 바다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다. 오늘도 제주 해안을 돌며 바라본 바다처럼,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 바다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